권좌에 앉은 사탄 통치력의 실제

(계2:12~17)

12.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3.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4.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권좌에 앉은 사탄 통치력의 실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권좌에 앉은 사탄 통치력의 실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아직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정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자녀로 예정한 그 자녀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때까지, 이미 사탄은 패배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만,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왕으로서의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중에서 권세를 잡은 왕으로서의 통치력이 이 지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버가모 교회처럼 실제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통치력이 먹혀 들어오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계시를 주신다는 것입니

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은 17절에 기록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라는 약속으로부터 출발을 해봅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고 그런데 그 돌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만나도 감추어졌던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을 흰 돌도 그 위에 이름이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압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와 나의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흰 돌은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오늘 이 약속은 사탄의 통치력의 실질적인 영향력에 말려들거나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이긴 사람에게는 이러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감추어진 만나예요.
만나는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인데, 이 땅 위에서 인간이 그 어떠한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은총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서 이 땅에 있는 육체가 배를 채워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나가 여기서는 마음의 배를 상징하면서 연관성을 갖는 거예요.
이 뱃속의 위가 채워지는 것처럼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못 삽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을 채워서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는 세상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짜 만족거리들을 계속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분명히 마음에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인 것이고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야 진짜 사는 겁니다.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영양상태가 좋아도 마음이 좌절해서 일어나는 것이 자살 아닙니까? 이미 죽은 것이죠. 마음이 죽고 나서 몸을 죽이는 것이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받은 증거가 만족이고 기쁨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만족과 기쁨의 이유를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마음의 위를 채워주는 만족이기 때문에, 이유를 몰라서 감추었던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만족하는 줄로 알고, 경쟁에서 일등 해야 만족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감추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만족이 되는데, 그 만족감의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 자신.
그러면 이 흰 돌과 그 위에 있는 새 이름은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탄의 통치력의 실제적인 영향력을 벗어나서 이기는 사람에게 줄 흰 돌에 새 이름이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드라마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애인이 된 사이에서 아주 돈도 잘 벌고 능력 있는 남자가 자기 애인한테 '아가!', '아기야!'라고 부릅니다. 서른이 다 돼가는 처녀인데 아기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둘만의 사이에서 통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아기야 뭐 먹고 싶어?"
밖에서 누가 들으면 이 사람이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둘만의 관계에서 아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늘에서 불리게 될 내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1:1의 관계에 들어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가라고 부르실지, 자기라고 부르실지, 그 외에 자기 여자 친구가 너무 예뻐서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의 꽃사슴아! 라고 부를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1:1의 관계에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새 이름을 받았습니까?
이게 꼭 재림 때까지 가야만 되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통치력을 이기면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귀중한 선물들을 약속 받을 수 있는 사탄의 실제 통치력을 이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의 실제 통치력이 무엇일까를 살펴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1장 16절에서도 입에서 좌우에 날 선 검이 나오는 분으로 묘사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부분으로 당신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메시지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이것과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2-13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하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권좌, 권좌가 뭡니까? 모든 권력을 집중해서 갖고 있는 곳이 권좌 아닙니까?
통치력이 나오는 곳이 권좌입니다, 통치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버가모라는 도시의 당시 상황이 사탄의 권좌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과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가능성은 버가모라는 교회의 현재 상황에서 사탄의 통치력의 핵심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본질적인 의미예요.
버가모라는 도시의 역사적인 상황이 사탄의 권좌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무시될 수는 없지만,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내용은 버가모라는 교회의 현재 상황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통치한다고 할 때에, 그 통치의 실제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도대체 어떻게 돼야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탄의 통치력 하에 들어간 것이라고 알 수 있는 핵심 내용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맨 처음에 에베소교회가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서쪽 끝의 바닷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교회는 거기로부터 한 56km 북쪽에 있어요. 버가모는 다시 서머나에서 40~50km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의 도시를 소아시아 3대 도시라고 말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상업의 중심지로서 경제의 허브였다면,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문화적 중심이었습니다.
그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요즘 의과대학처럼 여기도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 당시의 의술을 가르치는 데, 그 의술과 연관 되어서 뱀처럼 생긴 에스쿨라피우스라는 이름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군대의 의료반을 보면 막대기 같은 데에 뱀이 똬리를 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에스쿨라피우스라는 뱀 신을 치료의 신으로서 숭배하는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서 20만권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때의 책이라는 것은 파피루스와 양피지로 이루어진 책이라서, 책 한 권의 부피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런 책이 20만 권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도서관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적 중심지의 특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해발 300m 언덕을 가운데에 두고 있었던 도시인데, 그 꼭대기에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신전지도자로 지내다 죽었다고 하는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신전까지 있었고, 거기에 로마제국 내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숭배를 전국적 정책으로

실시하기 이미 1세기 전에 황제숭배의 신전이 로마제국 내에서 가장 먼저 생긴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버가모, 다른 도시에 비해서 너무나 다양한 우상숭배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좌라고 말 했을까요?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권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좌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뭔가 알아야 사탄의 권좌라고 말하신 이유를 아는 겁니다.
사탄의 통치력의 핵심이 바로 발람의 교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의 핵심이 바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속에 들어있습니다.
의문이 되는 것은, 보세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사탄의 권좌라는 이 도시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순교를 당할 때도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 했다고 그래요.
13절에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나오잖아요.
칭찬이죠.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져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은 사실 버가모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발람이라는 말과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니콜라우스는 같은 말이에요.
발람은 히브리어인데 정복한다는 뜻의 ‘빌’과 백성이라는 뜻의 ‘암’이 합쳐진 말입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니콜라우스는 니콜+라우스인데 니콜은 이긴다는 뜻이고 라우스는 백성을 말해서, 백성을 이기고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콜라우스지만 그 의미가 구약에서의 발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모세의 영도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다가 모압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모압 민족의 왕인 발락이 모세의 영도 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존의 족속들을 파죽지세로 다 물리치고 자기의 나라 앞에 당도하게 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3번이나 저주하게 하는데 이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끄심에 묶여서 저주를 하려고 섰다가

축복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이기려고 했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혼합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압의 신이었던 바알브올이라는, 브올 지역에 있던 바알 신을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주었던 간계였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스라엘을 네가 원하는 대로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진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너희 민족들의 여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이 혼합 결혼을 하도록 유도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이야기한 것은, 그 의미를 이해해야 발람의 교훈에 미루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상 바알브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바알브올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주고, 다산(多産)이라는 수적인 부흥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만 살다가 밖으로 나와서 이제 모압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그 여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알 우상에 절하고 섬기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돈을 벌어야 살지 않느냐? 우리가 부자가 되면 좋지 않느냐? 바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방법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종교적인 의미에서 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상관없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살고 있는 한 돈을 벌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방법론으로서 바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생활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발람의 간계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고 제사 드리고 하는데, 바알 앞에 절하는 것은 신을 섬기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돈을 잘 버는 방법이다.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내 삶, 사업, 교회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삶에 필요한 방법론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책이 20만 권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양피지 하나로 책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크기여야 되겠고, 어느 정도로 한 권이 되겠습니까? 둘둘 만 양피지가 열 뭉치는 있어야 한 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20만 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책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한 마디로 잘 먹고 잘 살자는 이야기고, 한 마디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경계 안에서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이 책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버가모에는 의학교가 있었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뱀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뱀 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건강한 게 좋지 않느냐? 건강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는 그 미신과 우상숭배가 의학이었습니다. 건강을 추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상이 의미 있게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잘 살고 싶어요.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운다든지, 헬라적인 의미에서 에베소에서는 똑같은 풍요를 관장하는 아데미 여신이 있었습니다. 버가모에는 제우스신이 있는 거예요. 제우스가 날씨를 관장하고 인간의 행과 불행을 관장하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똑같은 의미의 신들이 계속 있는 이유는 모든 인간들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걸 원하는 것이 뭐가 잘못 됐느냐'는 것이 발람의 교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칼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38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런데 발람의 교훈에서 마귀의 통치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 됐느냐?'라고 나오는 겁니다.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예수님보다 먼저 아들이나 딸이 들어와 있

는 겁니다.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칼로 잘라내야 한다고 하십니다.
목숨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서 육체로 살고 있는 나의 인생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안에서, 인간 사회의 경쟁에서 1등 함으로써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겁니다. 1등 하려고 노력하고 갈망하는 것이 이게 뭐가 나쁘냐는 겁니다.

결국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기준대로라면 뭐가 문제입니까?
마귀의 통치력의 실제는 그것이 무엇이라도 좋아요, 가족이라도 좋고, 돈 많이 버는 일이라도 좋고, 건강이라도 좋고, 예배당 건축이라도 좋고, 수적인 부흥이라도 좋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시간과 공간의 세계 안에서 일어날 일과, 만나는 대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을 막는 겁니다. 그 막는 가장 간교한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마땅한 사랑이 아니냐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사랑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일단 사업을 시작했으면 많이 벌기 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왕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태어났으면 멋지게 내 인생을 살아보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세계 안에 계속 마음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교회 교인들에게 마땅한 일이라고 가르치며 마음을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교인들의 마음을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물게 하는 설교가 있으면 그것은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동침할 때에 비느하스가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장막에 가서 창으로 그 남자와 여자를 꿰뚫어버립니다. 그 때에 여호와의 진노가 누그러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설교 시간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돈 잘 벌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가지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칼로 꿰뚫어서 쳐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날이 선 칼로 주님께서 단호하게 처분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렇게 우상숭배를 한 2만 4천 명이 죽는데, 그 두령들을 목을 잘라서 대낮에 막대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그 정도로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대처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겁니다.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다, 나는 단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사탄의 권좌에서 뻗어 나오는 실제적인 통치력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 죽음으로써만 이길 수 있게 해주심으로, 감춰진 만나와 내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